

그해 오월 남도는 하나였다 5·18 광주사적지를 가다

② 항쟁 불씨 불인 전남대...5.18km 민주길 단장

학생-공수부대 정면충돌...5·18민주화운동에 불 붙이다

1980년 봄 전국 대학에선 연일 시국 성토대회가 이어졌다. 학원자유화, 비상계엄 해제, 민주주의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광주에서는 5월 14~16일 도청 앞 광장에서 민족·민주화성회가 열렸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16일 밤 성회를 끝내면서 '만약 휴교령이 내려지면 오전 10시 학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12시 도청으로 모이자'고 약속했다.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평온하던 제주도까지 포함시키고 전국 대학에 계엄군이 들어닥쳤다. 계엄군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대학을 점령했다. 전남대에는 7공수 33대대가 내려왔다. 공수부대는 학내에 있던 학생 69명을 붙잡았다. 조선대에서선 43명을 체포했다. 한밤의 폭거였다.

●합동수사단 정동년 등 12명 체포

505보안부대를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단도 예비검속에 나섰다. 합수단은 검속 대상자 22명(전남대 12명·조선대 10명)을 선정했다. 한밤 중 난입한 수사단에 정동년 김상윤 등 12명이 붙잡혔다.

대학엔 휴교령이 내려졌다. 18일 일요일 오전 10시 학생들이 학교로 향했다. 이틀 전 민족·민주화성회 때 약속을 기억한 학생들이었다. 학생 200여명이 교문을 막아선 공수부대와 용봉천 다리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용봉천은 지금 복개공사가 이뤄져 길로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은 '계엄군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외쳤다. 일부 학생은 돌맹이를 던지며 항의했다.

진압봉을 치켜든 공수부대가 달려들었다.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다. 공수부대는 학생들을 쫓아 골목까지 내달렸다. 잔혹했다.

학생들은 공수부대의 폭행을 시민들에게 알리자며 도심으로 향했다. 전남대 앞에서 광주역(신역) 광장,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거쳐 금남로로 갔다. 학생들은 가톨릭센터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총장파출소 유리창이 시위대에 의해 깨졌다.

●공수부대, 전남대 정문 앞 시위대에 충격

공수부대는 처음부터 진압봉과 대검을 사용하며 피를 흘렸다. 청각장애인 김경철은 제일극장 부근에서 공수부대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실신했다.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진 김경철은 이튿날 새벽 국군광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18일 하루 연행자만 405명, 일반인도 184명 포함됐다.

20일엔 전남대에 머물던 7공수가 3공수여단으로 교체됐다. 7공수는 조선대로 이동했다. 3공수는 그날 밤 광주역 광장 시위에서 붙잡은 시민을 대학 이학부 건물에 가두고 구타했다.

21일은 비무장 시민을 향한 공수부대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다. 그보다 두세 시간 전 공수부대는 전남대 정문 앞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았다. 총격을 받은 고등학생 이성귀가 사망했다. 공수부대는 이성귀의 시신을 전남대 교정 뒷동산에 암매장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전남대 앞 주택가에서 임신 8개월의 최미애를 조준 사격해 사망케 했다. 금남로뿐 아니라 전남대 부근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3공수여단은 이후 광주교도소로



5·18민주화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전남대학교 정문. 1996년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비상계엄 확대 공수부대 배치
7공수, 전남대생 등 체포 폭거
정문서 대치 중 시위대에 충격

임신 8개월 최미애 총격 사망
이성귀 시신 전남대 교정 매장
대학생들 공수부대 만행 알려

전남대 민주길 조성 의미 기려
민주화 역사·오월정신 상징길
박관현·윤상원·윤한봉의 헌신
목숨건 투쟁·희생 통한 결과물



전남대5·18광장. 전남대학생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은 공간이다. 80년 봄은 물론 80년대를 관통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시위도 여기서 펼쳐졌다.

이동했다. 21일 부처님 오신 날의 일이었다.

정신을 상징하는 길이다.

●전남대, 5·18사적 제1호 지정

전남대학교는 5·18민주화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이다. 5월 18일 학교에 가던 학생과 학교 출입을 막는 공수부대의 충돌이 도화선이 됐다. 5·18사적 제1호 표지석이 정문 앞에 세워져 있다. 정문은 1996년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는 정문을 한쪽에 그대로 뒀다.

학내에 민주길도 조성됐다. '전남대 민주길'은 민주화운동 정신과 인물·장소를 기념공간으로 정비하고 연결했다. 11개 기념공간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정의의 길, 인권의 길, 평화의 길로 이름 붙였다. 3개 길을 모두 합하면 5.18km에 이른다. 정의의 길은 정문에서 박관현언덕, 윤상원숲, 김남주들, 교육지표마당, 벽화마당, 전남대5·18광장을 거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연결된다. 전남대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오월

●박관현 총학생회장·윤상원 열사·윤한봉 '목숨 건 투쟁'

'민주화의 새벽 기관차'로 불리는 박관현은 80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족·민주화성회를 이끌었다. 윤상원 열사는 '오월광주의 대변인'으로 통한다. 5월 27일 새벽 도청에서 공수부대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남주는 독재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한 혁명 시인이다. 교육지표마당은 78년 일어난 교수들의 유신교육 반대 시위를 기념한 공간이다. 인권의 길은 전남대5·18광장, 용봉열사 추모의벽, 오월열사 기억정원을 지난다.

전남대 5·18광장은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은 공간이다. 80년 봄은 물론 80년대를 관통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시위도 여기서 펼쳐졌다. 추모의 벽은 민주주의

80년 당시 전남대 정문.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정문 한쪽에 설치됐다.



전남대 앞 주택가에서 공수부대의 조준사격을 받고 숨진 임신부 최미애의 묘.

를 위해 희생한 전남대 열사를, 기억정원은 서호빈 류영선 이정연 등 오월열사를 기리는 공간이다.

평화의 길에서 만나는 윤한봉은 5·18의 마지막 수배자다. 81년 4월 미국으로 밀항, 미국에서 5·18 진상규명과 통일운동에 헌신했다. 70~80년대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외친 구호와 유언물을 새긴 바닥도판 100여 개도 민주길에 깔려 있다. 전남대 민주길은 80년 5월 광주를 만나는 길이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민주와 인권이 수많은 선배들의 목숨 건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결과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몫이다.

이돈삼

5·18기념재단 오월언내 해설사, 전남도 대변인실



>> 시리즈 목차

1. 신군부 권력 찬탈 맞선 열혈간의 민주항쟁
2. 항쟁 불씨 불인 전남대...5.18km 민주길 단장
3. 분노한 시민과 계엄군 충돌...첫 집단 발포
4. 뜨거웠던 항쟁의 거리 민주화운동 산실로
5. 민주시민 사랑방에서 왜곡 보도 맞선 저항
6. 아전병원에 이어진 헌혈 행렬 '광주공동체'
7. 인권·저항운동 하고 우리지역 우리 손으로
8. 계엄군 오인 사격...민간인 학살 자행 '참혹'
9. 노동아학 개설...맨몸으로 맞선 죽음의 행진
10. 김대중내란음모 시나리오 꾸미고 고문·조작
11. 시민군 편성...주먹밥으로 이룬 이기는 연대
12. 폭동과 내란 폭도에서 민주화운동·유공자로
13. 민주열망 모인 송정역광장과 윤상원 태자리



전남대학교 정문에 세워져 있는 5·18사적지 제1호 표지석.



전남대 민주길에서 만나는 윤상원숲. 윤상원 열사는 5월 27일 새벽 도청에서 공수부대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오월광주의 대변인'으로 통한다.



전남대 민주길에서 만나는 박관현언덕(위)과 우리교육지표 기념물. 박관현은 80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족민주화성회를 이끌었다. 교육지표마당은 78년에 일어난 전남대 교수들의 유신교육 반대 시위를 기념한 공간이다.